

매크로의 폭풍과 KOSPI 6000 고지전: 국지적 돌파 전략

■ 글로벌 시황 및 포트폴리오 전술 브리핑



시장을 짓누르는 4대 핵심 압력 (The 4 Catalysts)



미국 CPI 대기

15일 발표 예정(코어 2.5% 전망).
연준의 금리 경로와 전 자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최대 변수. 극도의 관망세.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

WTI \$94.77 도달.
인플레이션 재점화 우려 확대 및
해운·에너지 섹터 강세 촉발.



반도체 이중 악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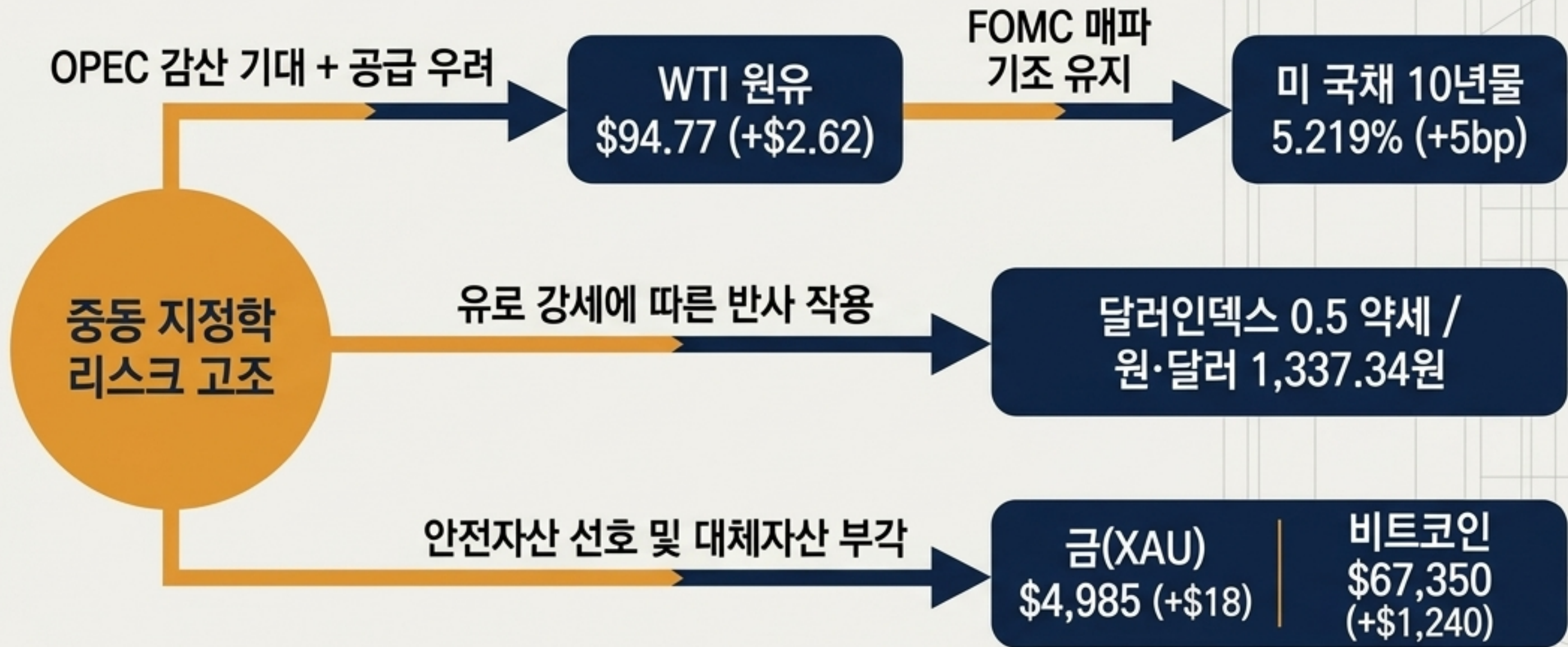
미국 마이클 버리의 AI 슷 베팅과
중국 CXMT의 신기술 공세가 맞물려
글로벌 반도체 투심 극도 위축.



KOSPI 6000 방어전

6일 연속 하락 속 6000선 턱걸이.
외국인의 거센 매도에 맞선
개인·기관의 수급 공방.

FICC 매크로 연쇄 반응: 인플레이션 공포의 재점화



미 CPI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자산 시장 전반에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인플레이션 헤지 성격의 자산들만 국지적 강세 시현.

글로벌 증시 디커플링: CPI 경계감 속 엇갈린 촉매제

미국: 은행·반도체 실망감

NASDAQ 27,204.38 (-0.15%)

대형 기술주 중심 선별적 흐름 및 하락 압력

유럽: 우크라 평화 기대감

DAX 24,998.00 (+0.80%)

방산주 주도 강세 랠리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상하이 3,215.00 (+0.45%)

본토 증시 정상 거래 중 긍정적 흐름

중국: 경기 부양책 기대감

통지 3,215.00 (+0.45%)

본토 증시 정상 거래 중 긍정적 흐름

일본: 엔화 약세 방어

닛케이 225 (-0.05%)

수출주 선방했으나 전체 지수는 약보합

**펀드스트랫: 향후 6개월 글로벌 증시 강세 전망,
현재의 조정은 매수 기회.**

반도체 섹터를 덮친 이중 악재 (The Double Whammy)

미국발 악재: AI 거품 붕괴 베팅

‘빅 쇼트’ 마이클 버리

- 나스닥 100 지수 및 반도체 ETF 풋옵션(하락 베팅) 포지션 집중
- AI 고점 논란 재점화 및 월가 투자 심리 급랭

중국발 악재: 공급망 교란 우려

중국 CXMT (창신메모리)

- 메모리 신기술 발표로 인한 공급망 교란 우려
- 기술 실효성 의문에도 불구하고 변동성 가중 요인으로 작용

韓 증시로의 부담 전가 (Spillover Effe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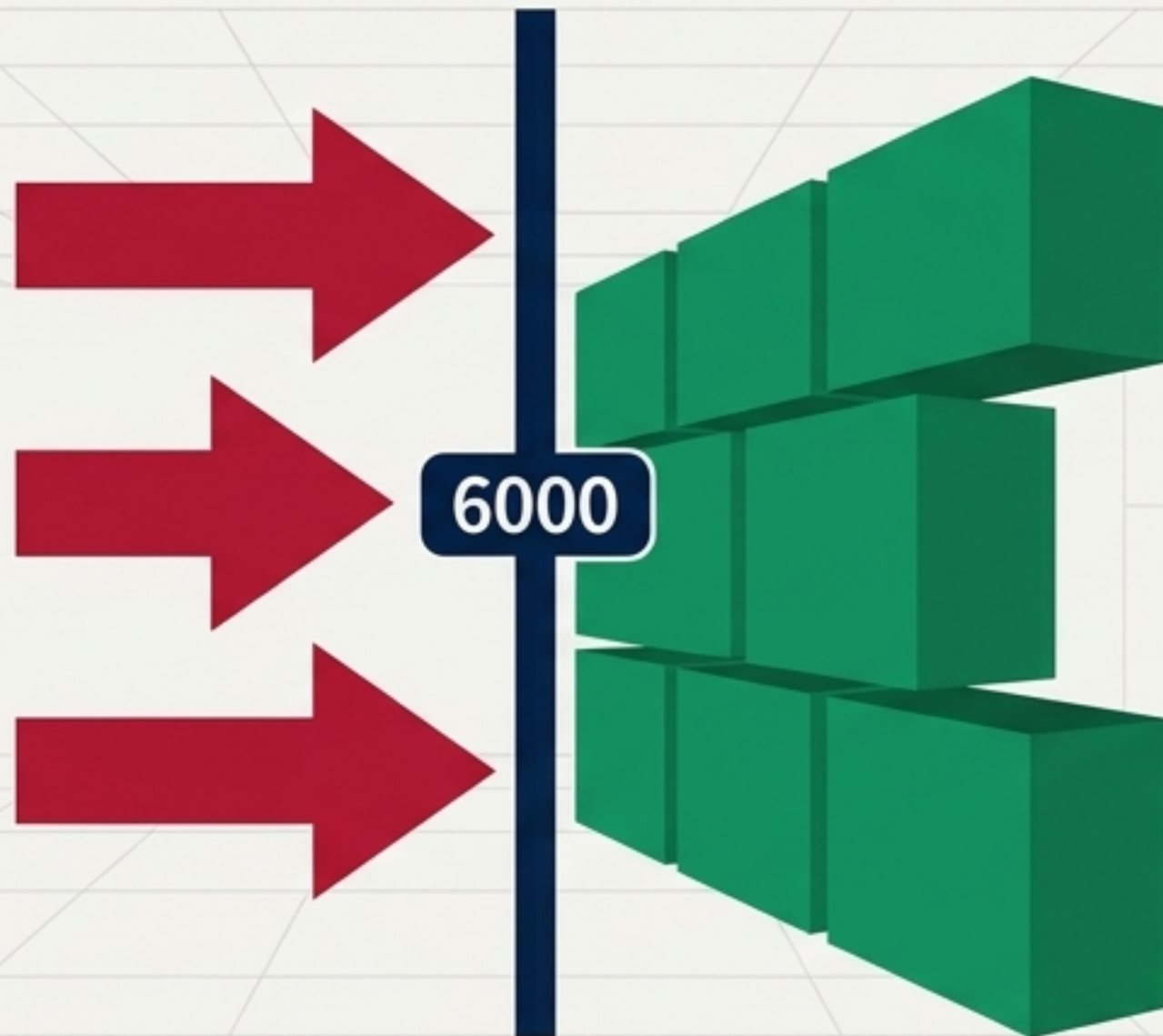
미·중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악재가 글로벌 반도체 투심을 억누르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비중이 높은 한국 코스피에 직격탄으로 작용.

KOSPI 6000 고지전: 외국인의 용단폭격과 처절한 방어

KOSPI 현재가 6,008.81 (-0.44%) / 6거래일 연속 하락

**끝없는 탈출 행렬
외국인 83만 주 순매도**

반도체 투심 위축 및 글로벌
관망세로 인한 대규모 자금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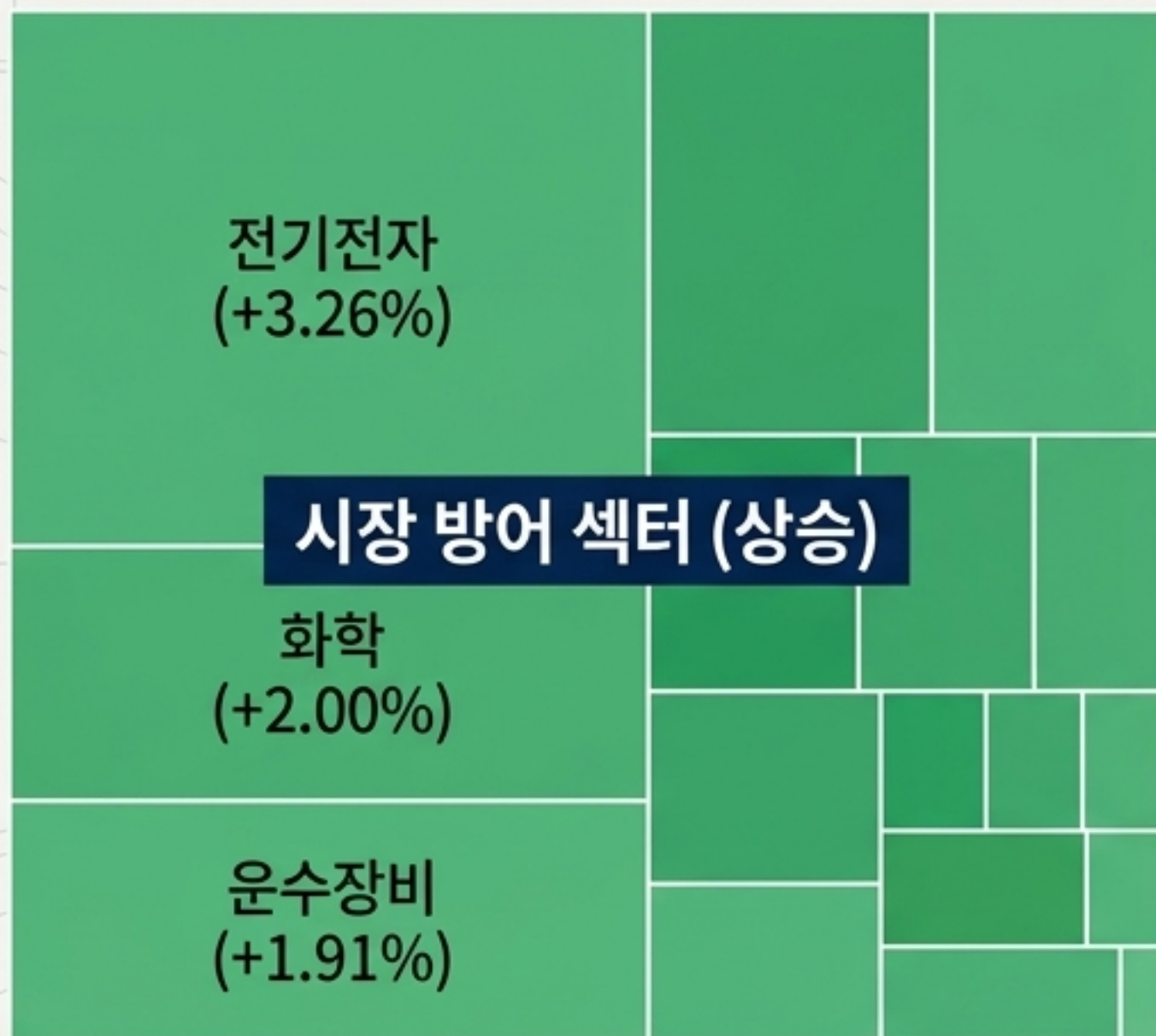
**6000선 사수 의지
개인 50.5만 주 +
기관 31만 주 순매수**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간신히 6000 턱걸이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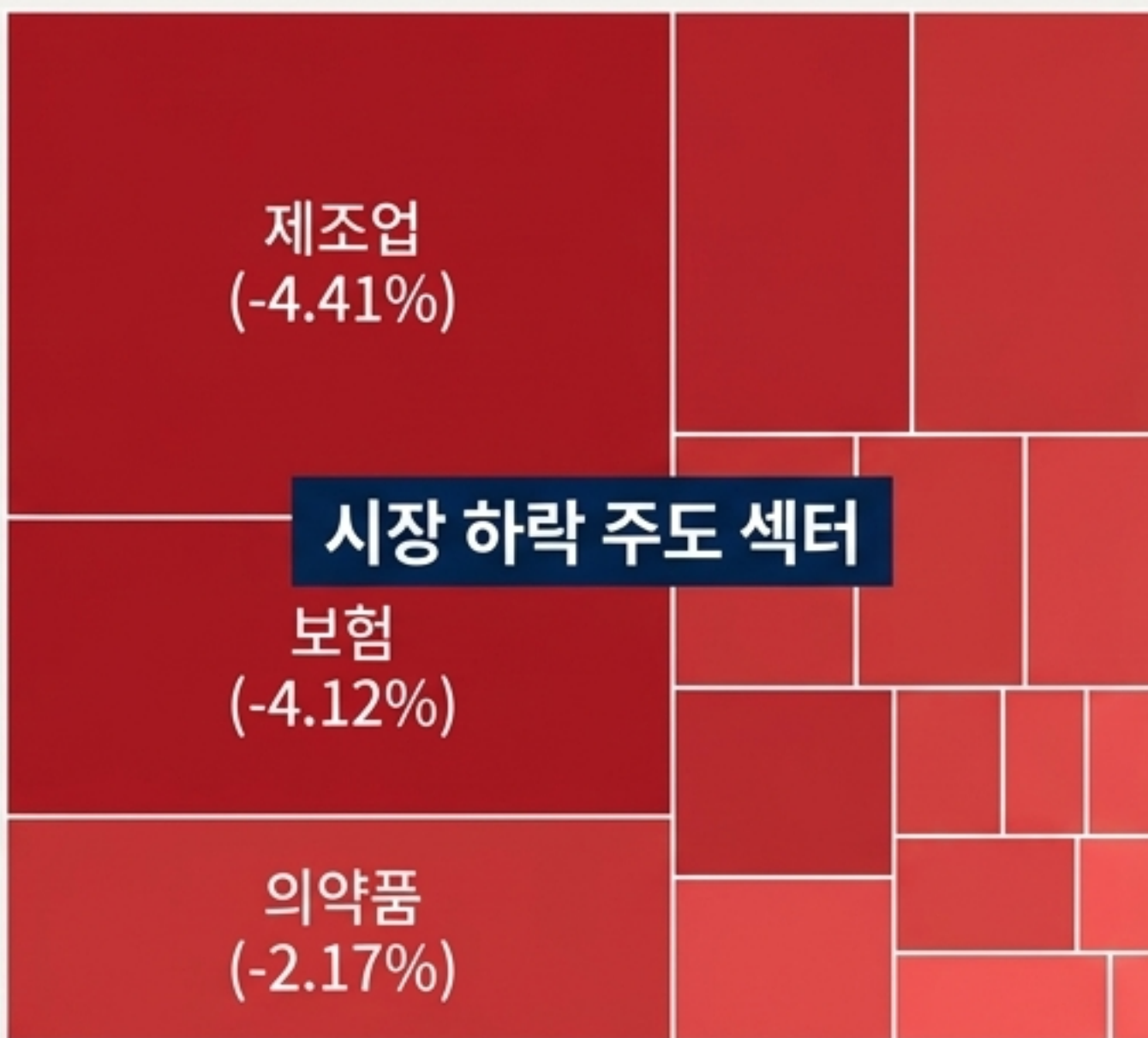
장중 1%대 반등(6090)을 시도했으나,
장 막판 투매 물량 출회로 지수 역전 무산.

KOSPI 섹터별 온도차: 파편화된 수익률



시장 방어 섹터 (상승)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전기전자, 화학, 운수장비가 시장의 붕괴를 막아내는 완충기(Shock Absorber) 역할 수행.



시장 하락 주도 섹터

호르무즈 해협 긴장 고조로 해운·에너지주 국지적 강세 시현 (섹터 외 테마 동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해부: 2차전지의 약진과 반도체의 침묵

방어의 주역 (Defenders)

2차전지 랠리

삼성SDI (+6.43%)
LG화학 (+2.67%)
LG에너지솔루션 (+2.44%)

자동차 선방

기아 (+0.37%)
현대차 (-0.48% 약보합)

지수 하락의 원인 (Draggers)

반도체 약세

SK하이닉스 (-1.25%)
삼성전자 (+1.08% 보합 수준)

바이오/철강 혼조

삼성바이오로직스 (-2.24%)
POSCO홀딩스 (+3.01%)

표면적으로 전기전자 섹터가 상승했으나, 이는 반도체의 반등이 아닌 2차전지 3인방의 폭발적 랠리에 기인함. 반도체는 철저히 글로벌 악재에 연동되어 소외된 상태.

핵심 촉매제 타임라인 (The Catalyst Timeline)

10/14 (수)

일본 PPI 발표 완료
(7.6%)

10/15 (목)
[★★★ 최대 분수령]

미국 CPI 및 Core CPI 발표
(예측: 3.6% / 2.5%)

전 자산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인플레이션 가늠자

중국 수출입 데이터 및
ECB 라가르드 총재 연설

10/16 (금)
[★★ 국내 증시 향방]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기준금리 결정)

현대차/기아, LG에너지솔루션
3분기 실적 발표

미국 소매판매 및 PPI 발표

10/20 (화)

중국 GDP 및
소매판매 발표

전술적 행동 계획 (Tactical Action Plan)



거시 경제의 연쇄 반응(유가→CPI→금리)이 섹터(반도체/2차전지)의 방향성을 완전히 압도하는 장세. 개별 기업의 펀더멘털보다 매크로 지표 확인이 최우선.